

2009년 1월 16일 금 말씀

지금은 자기 실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큰 교회 맡아서 할 수 있습니다. 신학 안 나왔어도 자기만 실력있고 잘 해 나가면 얼마든지 맡길 수 있습니다. 실력자는 어디서든 실력만 되면 쓰여지는 것입니다. 교역자들이 실력없다 하고 간판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 전혀 상관없습니다. 선생님부터도 실력만 있으면 다 합니다. 실력 있으면 금메달 따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필요없습니다. 사람을 뽑을 때 무조건 다른 것으로 안 뽑고 처음부터 실력으로 뽑아서 대회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새롭게 하라는 것은 말씀만 새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체제도 새롭게 해서 나가야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삽질 열심히 했다고 해도 수고했다고 안 합니다. 포크레인으로 한번 찍어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포크레인으로 한번 딱 찍어내면 삽질 하루종일 한 것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지 이제는 나이를 먹어서 힘들게 하면 안됩니다. 자기 기술대로 써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유대인들 4000년 동안 가르쳤지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니까 유대인들이 안 따라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6000년 동안 했는데 지금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가르치기를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을 잘못 심어줘서 인도하기가 힘들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지도자들이고 서로 다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생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대로 가르치니까 힘 안들고도 잘 따라오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잘 가르치면 서커스에서 묘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면 너무 신기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 가르치면 동물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해준다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니까?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 일 하기 바깥입니다. 눈 깜빡만큼만 도와줘도 그것이 엄청 큰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됩니다. 사막길에 서 있을 때 누가 지나가면서 “앞으로 누가 도와준다. 걱정마라.” 했으면 계속 그 자리에서 기다리다가 지나가던 사자 떼에게 잡혀먹힙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가라.” 하고 알려줬으면 부지런히 가서 안 잡혀먹힙니다. 그러니 잘 못 가르치면 큰일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 가르쳐주셨기에 잘 해서 현재 기독교가

유대 종교에 비교가 안 되게 커진 것입니다. 유대 종교가 만분의 일도 안 됩니다. 우리도 잘 가르쳐서 그렇게 커진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잘 가르쳤으니 내가 없어도 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가르쳐주니까 회원들이 하나님 잘 믿고 계속 순진하고 귀엽게 잘 따라오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학문은 없어도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니까 잘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잘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백만명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봤기 때문에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교인 만들려고 그렇게 인도해주고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메시아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주고 믿고 따라 가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많은 교리가 필요 없습니다. 예전엔 학문을 배우던 사람들이라 이것저것 따지니까 그런 교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했다가 30개론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30개론보다 주일, 수요일을 들을 때 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과학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안믿으니까 나사로가 육신이 부활 된 것인데 영적 부활이다 정신적 부활이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성장해서 젓 먹을 때가 아니니까 육신 부활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으니까 그렇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사람이 우리 마을에도 있었습니까. 어머니 말씀이 마을에 사시던 할아버지가 3일동안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하셨습니다. 죽어서 묶어 났었는데 다시 살아서 풀어보니 몸뚱이가 구렁이가 몸을 감은 것 같이 시퍼렇게 되어서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까.

박재봉 목사님도 3일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만 가르치면 안 믿습니다. 다른 것을 가르치면서 하니까 성경도 믿어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가 없는 것 같아도 믿으니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식으로 인도하면 안됩니다. 상대방 식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 쥐서 나름대로 사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 식으로만 이야기하면 따라가기 싫어합니다.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양을 잘 살피주면 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말씀을 잘 읽어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많이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많이 있는
데 돈 있다고 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도 다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는 것 다 못쓰고 거지들도 다 못쓰고
죽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
하는 것은 말 잘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적을 많이
세워도 말을 안 들으면 싫어하십니다. 그러니 말 잘
듣고 순종하고 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교리가 그것입니다. 순종하는 길은
‘여기서 할 일을 다 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러면 일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일 하다가 죽을 정
도로 많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자꾸 하고, 놀면서 가만
있으면 지루하니까 일도 조금씩 하면서 말 잘 듣고
해나가면 됩니다. 비행기 탈 시간이 됐는데 화장실
가고 싶다고 무조건 화장실 가버리면 비행기 떠나버
리고 그러면 세계일주 못하는 것입니다. “나 소변 마
려워” 하면 “비행기 안에 화장실있어” “나 그거 몰
랐어” 이렇게 물어봐야 잘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
라고 할 때 새롭게 하면 표적이 일어납니다. 500번
씩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알고 열심히 해야 됩
니다.

말 잘듣고 순진하게 가야 됩니다. 어떤 교리를 많이
안다고 그것이 큰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주
님만 알아도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게 제일 좋은 것
입니다. 그것이 최고입니다. 근본입니다. 다른 사람들
은 나처럼 이렇게 안 믿고 뺄뺄하니까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계속 엄청난 말씀을 꺼내서 가르쳐주
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10시간씩 했습니다. 말로 하
면 간단한 것입니다. 7분도 길입니다. 3분만 하면 됩니
다. ‘열심히 해.’ ‘네!’ 하면 다 했습니다. 그것이 교리
입니다. 안 하니까 이것 가르치고 저것 가르치고 한
것입니다. 생활가운데 가면 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활속에서 해야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
건 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시키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이 시켜
서 하라고 해서 하면 다 천국가고 지옥갈 사람이 하
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은 본인이 하기를 원합
니다. 예수님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권
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장하지 않고
억지로 시키지 않는다고 최고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
께 억지로 하면 안 통합니다. 본인이 하는 것은 얼마
든지 받아주십니다. 본인이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과
살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받아 주십니다. 내가 그렇
게 살았습니다. 영은 아무리 불러도 안 통합니다. 그

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면 한 번에 통합니다. 우
리가 자꾸 불러야 합니다. 그것이 교리입니다. 몇 가
지 안되니 그것만 항상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